

옛 해남군 청사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철거 마무리...상반기 주민친화형 열린 광장 조성 천연기념물 ‘수성송’ 환경변화 연구 용역도 진행

해남군이 옛 청사 철거작업을 마치고 주민광장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옛 청사 철거 작업을 위해 도로변으로 철골 시설물을 100여미터 설치하고, 천연기념물 수성송 주변으로는 이중 펜스와 고가 살수차, 조장축 압쇄기 등 장비들을 동원해 안전하게 해체를 진행했다. 문화예술회관과 주변 상가 등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공사 구간을 전면 통제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군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주민광장 조성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으로 옛 청사 철거구역에 주민친화형 열린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청사 민원실 입구의 가로선을 연장해 차로를 확장하고 대형버스 2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후박나무 등으로 수성송을 보호할 수 있는 방풍림을 심어 나무 주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광장바닥은 석재를 깔게 된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철거된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 430호 수성송의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새롭게 조성되는 주민광장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과 설문조사, 청사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안을 마련했으며, 군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옛 청사 철거구역과 현 주민광장에 대한 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남읍성 성곽보수와 주변 정비사업은 주민광장과 신 청사를 연결하는 계단설치 공사와 내측 성벽을 축조하고 있으며, 3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광장은 모든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며 “수성송 주변에 대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과 과거 주민광장의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주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청 전경. 신청사 앞 철거된 옛 청사는 주민광장으로 조성된다.

<해남군 제공>



운남초등학교 지효린(왼쪽)·예린 자매가 운남면사무소를 찾아 돼지 저금통 4개를 기탁했다. <무안군 제공>

“10년간 모았어요...어려운 이웃에 써주세요”

무안 운남초 효린·예린 자매, 돼지저금통 4개 기탁

무안 운남면에 사는 초등학교 재학생 자매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10년간 모은 돼지저금통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운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지효린(12)·지예린(8)양은 최근 엄마와 함께 무안 운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저금통 4개를 기탁했다.

두 자매가 내린 저금통 속에는 지난 10여년간 모은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다. 저금통에는 총 141만 9330원의 거금이 들어 있었다.

고사리 손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돈을 모아 기부까지 한 자매의 마음씨에 반해 면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효린 양은 “10년 전 삼촌이 저금통을 사주

셔서 저축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돈을 모아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했으나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 동생과 함께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효린 양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꿈이다.

자매는 2년 전에도 운남파출소에 저금통 2개와 마스크를 기탁하는 선정을 펼쳐 화제가 됐다.

김진만 운남면장은 “10여 년 동안 고사리손으로 모은 귀중한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준 선행하는 마음이 천사 같다”며 “따뜻한 기부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용자 신안군,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신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경로당에 낙상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5월 말까지 설치 완료 계획

영광군이 5월 말까지 지역 모든 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노인 사고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낙상·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모든 등록경로당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에도 고관절·요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어르신은 절반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노인복지 시설 내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경로당 이용 빈도가 높은 영광읍 우산여자경로당 등 52개소를 추천받아 안전손잡이를 설치 완료했다.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은 경로당 한 개소 당 안전손잡이 3~4개 설치를 기준으로 현관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출입구 등 바닥에 단 차이(턱)가 있어 어르신들이 한 쪽발을 딛고 걸음을 옮겨야 하는 곳에 설치된다.

특히 이밖에 설치한 안전손잡이는 목체 표면이 실리콘으로 물 묻은 손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존 알루미늄 재질에 비해 겨울철에도 차갑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손잡이 자체가 야광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제작



경로당 안전손잡이를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 모습.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었고 건축 설계기준이 일반성인으로 맞춰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코로나 자가검사용 키트’ 취약시설에 배부

목포시가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키트를 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배부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총복의 키트 제작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주)로부터 자가검사용 키트 3만개를 기부받았다. 시는 자가검사용 키트를 주 2회 진단검사(PCR 1회, 자가키트 1회)를 실시해야 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선원, 유흥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면서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월6일까지 선제검사가 기존 주1회에서 주2회(PCR 1회, 신속검사키트 1회)로 확대됐다.

자가검사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선제 검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현장, 대양산단, 삼진산단, 전통시장 등에서 1924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6565명을 검사했고, 숨은 확진자 29명을 발굴했다.

21일에도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산정농공단지, 건설현장, 시내버스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1471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복합문화센터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 주차장(15-17시)과 목상고(10-17시)의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연장해 24-28일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70 광주일보 70년
열독을 호남 1위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남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